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일본편

18 포라 미술관

자연과 미술이 하나로... 하코네의 랜드마크

포라 미술관(Pola Museum of Art)은 자연과 미술의 공생을 설립 이념으로 내세운 자연친화형 미술관이다.

후지 하코네-이주 국립공원 중턱에 자리한 포라 미술관은 지난 2002년 개관한 미술관이지만 수많은 관람객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하코네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우선 미술관과 자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건물의 구조가 눈길을 끈다. 3층 건물이지만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2개 층이 모두 지하에 배치돼 있다. 이 때문에 밖에서 미술관의 측면을 볼 경우 산자락에 건물이 지하벽처럼 묻혀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미술관 건물 출입구를 비롯 로비, 뮤지엄 습, 레스토랑의 벽면이 모두 투명 유리로 꾸며져 있어 코즈카산과 하코네의 빼어난 자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투명 유리 벽면 빼어난 자연 풍광이 한눈에 콘서트 등 각종 부대행사 관람객 눈길 잡아

연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친화적인 건물양식 때문에 이 미술관은 지난 2003년 무나로토고상, 일본 건축연구소상 등 11차례 건축관련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포라 미술관은 화장품 회사인 포라그룹의 오너 스즈키 츠네시가 40여 동안 모은 9천500점의 작품을 바탕으로 세워진 미술관이다.

핵심 컬렉션은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비롯한 근대 서양회화 400점이다. 인상파의 대가인 모네(20점), 르누아르 등과 후기 인상주의 작가인 세잔(11점), 고갱, 에콜드 파리의 멤버인 모딜리아니와 사갈 등의 작품이 소장품 목록을 구성하고 있다.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인 피카소(19점), 칸딘스키의 작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

“나와 마을”, “오페라장의 사람들”(이상 사갈), “잠시씩 보트”(모네), 중국의 꽃병(마티스), “아네모네”, “목욕하는 여인”(이상 르누아르), “미국의 이브”(고갱), “프로방스 풍경”(세잔) 등 대가들의 작품은 관람객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걸작들이다.

상설전을 통해 선보이는 이들 작품은 19~20세기 서양미술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컬렉션으로 꼽힌다.

또 840점의 회화, 동양 도자기 180점, 근대와 현대 일본 도자기 200점 등도 소장품 목록을 구성하고 있다.

포라 미술관은 화장품 박물관으로도 불린다. 전시되고 있는 각종 화장용품들은 지난 1976년 설립된 포라 화장품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다.

6천700여점의 화장용품과 화장품 관련서적을 전시한 공간은 화장품 업계 관련자들과 미용 분야 종사자들의 필수 견학 코스가 되고 있다.

다. 관광지에 자리잡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미술 교육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대신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전시와 연관된 부대행사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미술관은 현재 진행중인 ‘에밀 갈레 유리공예전’에 맞춰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현재 현악 4중주단을 초청해 전시에 맞춰 유리로 제작한 현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시간을 갖는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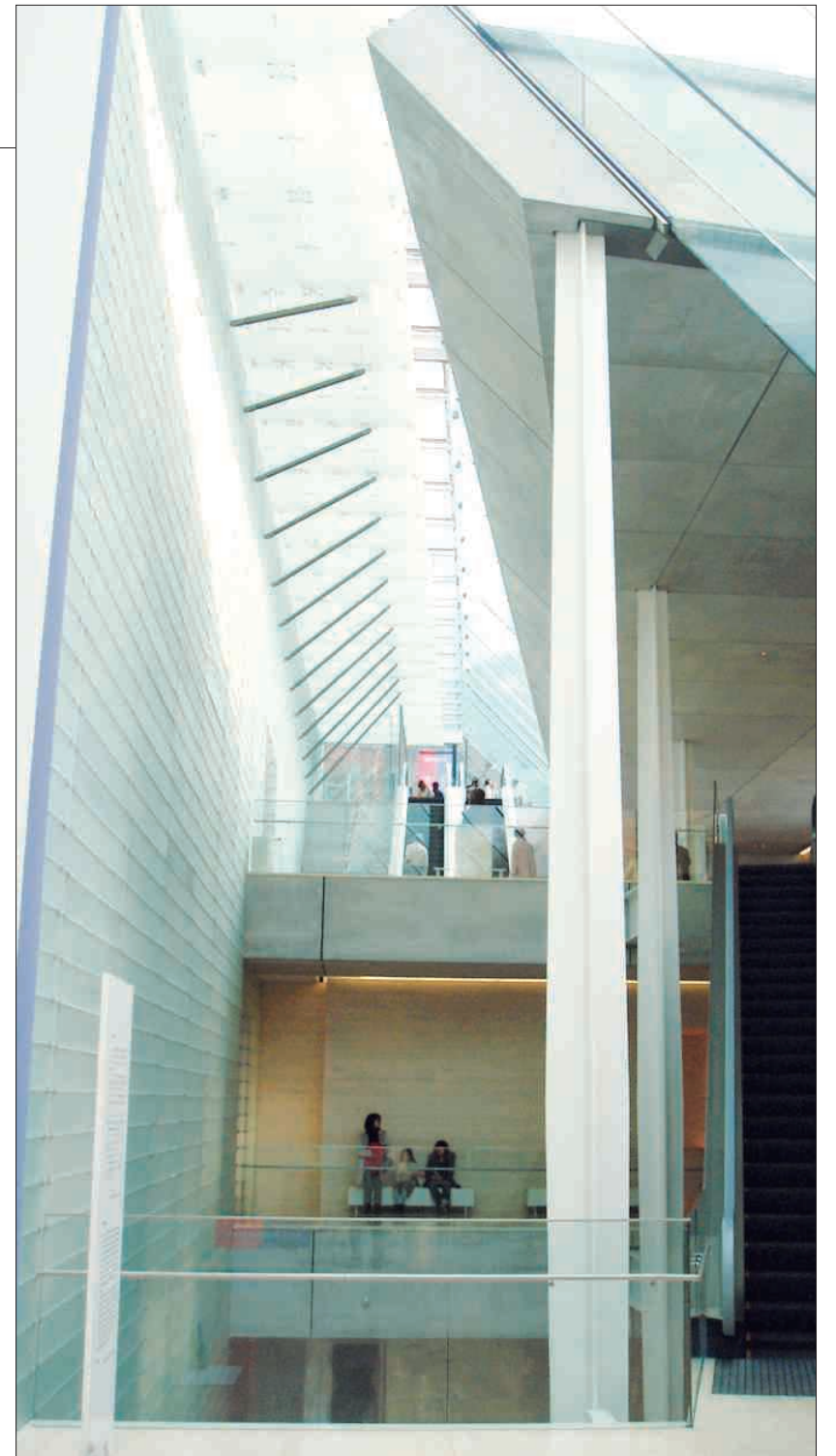
전시 주제와 소재에 따라 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평면적인 작품 관람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미술관이 관람편의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갤러리 토크는 횡수가 많지 않지만 심미안을 높여주는 수준높은 프로그램으로 통한다.

저명 미술 평론가나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포라 미술관의 갤러리 토크는 단순 작품소개가 아닌 미술사적 의미와 맥락, 작가의 삶과 예술을 아우르는 종합강좌로 정평나 있다.

우에키 하로시 관장은 “관객들이 찾는 미술관이기에 때문에 전시관람과 함께 휴양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며 “포근한 자연 속에서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미술관이 관람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후지 하코네-이주 국립공원에 자리잡은 포라 미술관은 투명유리로 건물 외관을 꾸며 대자연과 미술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포라 미술관의 소장 작품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모딜리아니의 ‘루니아 체호우스카의 초상’, 르누아르의 ‘레이스 모자를 쓴 소녀’, 고흐의 ‘화병에 담긴 엉덩이’ 사갈의 ‘나와 마을’.

광섬유 조명...계단 없는 출입구...인터넷 할인 장애우 등 관람객 편의 최우선

포라 미술관은 관람객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미술관이다. 일반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시장에 최신 광섬유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가 하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작품 전시장에 설치된 광섬유 조명은 간접 조명시설로 자연조명과 흡사한 조건에서 작품을 볼 수 있는 관람여건을 제공한다.

미술관측은 광섬유 조명이 발광할 때 열이 발생되지 않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작품을 보존하는 한편, 쾌적한 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명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한다.

장애인 누구나 쉽게 미술관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부터 주차장은 물론 건물 내부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설계를 채택한 것도 눈에 띈다.

주차장과 출입구가 장애물이나 계단 없이 수평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차에서 내릴 경우 곧바로 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다.



포라미술관의 카페는 하코네의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쉼터다.

미술관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시장 관람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디스카운트 쿠폰’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관람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미술관 내부에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는 유리로 마감한 벽면 때문에 하코네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형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movies Happy Time 영화야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총장로 5가 ☎ 228-2700

컬럼버스시네마 상무점

무등극장 총장로 1가 ☎ 232-9106

제일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